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허 묘 연*
이화여자대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타당화 연구로서, 서울지역 일반 인문계 중·고등학교 학생, 1,4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고찰과 사전연구 및 전문가의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부모 양육행동 문항들에 대해,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고려하여 8개의 요인(아버지 및 어머니 요인: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을 부모양육행동의 의미있는 구성요인수로 결정하였고, 이에 포함된 문항은 총 43문항이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내적일치도는 .68-.86이었고, 교차타당화에서 8요인 43문항이 잘 부합됨을 확인하였다. 부모양육행동 척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최종 아버지 및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은 실제 청소년의 정신병리를 반영하는 총문제행동 점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아버지 척도의 요인 중 과잉간섭, 방치, 애정, 감독, 비밀관성의 순서로, 어머니 척도의 요인 중 과잉간섭, 방치, 비밀관성, 애정의 순서로 청소년의 총문제행동 점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준거관련타당도를 위한 판별분석 결과,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은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 중에서는 방치, 과잉간섭, 애정요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에서는 과잉간섭, 방치, 애정, 비밀관성 요인이 두 집단을 유의미하게 판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양육행동척도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청소년, 부모, 양육행동, 척도

정신의학 및 인접영역에서 정신병리의 원인에 대하여 유전학, 발달학, 신경생물학, 환경적 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고, 최근의 연구결과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신병리가 발현된다는 다중결정론(multi-determinism)이 지배적인 추세이다(Engel, 1977). 이에 따르면 정신병리적 질환에의 취약성은 개인의 다양한 생물학적 특징과, 역기능적인 자기도식(self-schemata: 자신과 환경의 working model)의 출현 모두에 의해 결정되며, 후자의 발달에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Perris, Arrindell, & Eisemann, 1994).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심리 사회적 발달, 즉 성격과 정서상태는 물론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및 행동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정원식, 1975),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와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Becker, 1964; Cicchetti & Toth, 1995; Kaplan et al., 1998; Lewis, 1992; Mackinnon, Henderson, & Andrews, 1993; Parker, 1979a, 1979b; Rey & Plapp, 1990).

* 교신저자 : 허 묘 연,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메일주소 : moy23@hanmail.net

20세기 초기 연구들의 대부분은, 성격발달에 있어서의 차이를 만들고 결국은 부적응적 성격 패턴에 이르게 하는 양육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한 구성개념에 대한 검토 없이 임시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들마다 불일치된 결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정교한 개념의 발달이 지연되었다. 즉 많은 연구방법들이 양육행동의 독립적 요인들을 구분하여 측정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의 적응 및 결혼생활의 적응간에 구별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Perris et al., 1994).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Symonds(1949), Becker(1964), Schaefer(1959, 1965a, 1965b), Parker, Tupling & Brown(1979), Schaefer & Bell(1958), Perris, Jacobsson, Lindstrom, Knorring & Perris(1980) 등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있어서의 특정한 요인들을 밝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질문지를 개발하면서부터이다. 최근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Schaefer의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이하 CRPBI, Schaefer, 1965b)가 개발된 이후에도, Parker 등(1979)이 Parental Bonding Instrument(이하 PBI)를, Perris 등(1980)도 자신의 양육경험에 대한 기억과 관련된 척도(EMBU : Egnä Minnen Beträffande Uppfostran, own memories of childrearing experiences)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정신병리와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부모양육행동과 관련해서 많은 척도들이 제작되었는데, 한종혜(1980), 오성섭, 이종승(1982)이 제작한 척도가 있고, 이원영(1983)은 Schaefer(1965b)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번안, 수정한 양육태도 검사를 개발한 바 있다. 그 외에 최근에 박성연과 이숙(1990)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가 있으며, 이종일과 송수길, 윤창영(1998)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허묘연과 오강섭, 이시형(1998)은 사회 공포증과 관련된 부모 양육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의 개념과 개념구조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부모 자신의 성격 뿐 아니라 정서상태, 가치관, 신념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가족구성, 가정분위기, 가정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의 개인적 조건, 자녀의 개인

적 조건 등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양문현, 1983). Kagan(1971)이 지적하였듯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특정한 구체적 행동과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적인 태도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나, 대개의 경우 부모의 태도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으로 반영되므로 행동으로 묘사된 진술문을 통해 측정하여 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형식상 차원론적 구성과 유형론적 구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차원론적 구성은 양육행동을 몇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차원들의 연속선상에 양육행동의 요인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유형론적 구성은 특별히 차원을 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로 양육행동 척도를 구성한 것이다.

차원론적 구성에는 Symonds(1949), Becker(1964), Schaefer(1959, 1965b), Parker(1979a)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이중 척도의 관련성으로 인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이하 PBI)에서, Parker(1979a)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보호와 돌봄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각 차원의 직교좌표를 유대의 결여나 약함(absent or weak bonding), 애정없는 통제(affectionless control), 애정적 제한(affectionate constraint), 적절한 유대(optimal bonding)의 네 가지 양육태도로 구분하였다. 이외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한종혜(1980)는 부모 양육태도의 차원을 민주, 자율-권위, 통제, 그리고 애정, 수용-적대, 거부 2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론적인 구성으로는 Baldwin(1949), Baumrind(1967), Perris 외(1980)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자들이 양육태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모델을 보면, Baumrind(1967)는 독재적, 허용적, 민주적, 온정적 태도로 분류하였으며, Perris 등(1980)은, 요인분석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 온정, 과잉보호, 편애의 4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성연, 이숙(1990)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개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종일, 송수길, 윤창영(1998)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요인분석 결과 양육태도를 능동적 참여, 민주적 지도, 온정, 적대의 4요인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정신병리를 가진 청소년들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분석에서 신체적 학대 및 방치(neglect)를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Knutson(1995)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심리적, 신체적 손상이라는 결과가 남는 양육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

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외에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나 감독은 품행장애와 비행 등의 문제행동의 수정과 관련해서 많이 연구 보고되고 있는 요인이다(Forehand, Miller, Dutra & Chance, 1997; Wasserman, Miller, Pinner & Jaramillo, 1996). ‘긍정적인 참여’는 자녀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되었고,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있는 정도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와 방치, 감독 등의 요인은 다른 양육태도의 요인들과 함께 구조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발전된 개념이므로 기존의 양육태도 척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중요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개념으로 함께 다루어져야 할 구성개념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 사회적 발달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심리 사회적 발달, 즉 성격과 정서 상태는 물론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및 행동수행능력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원식, 1975).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직접, 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은, Locke(1693)의 교육철학과 Rousseau(1762)의 교육방법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 양육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심리학 및 인접과학 분야에서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이다. 이는 정신분석학 이론에 기초하여 발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것과, 초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학습과정을 강조한 것,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역기능적인 부모 양육행동과 성인이 나타내는 행동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임상장면에서의 반복된 경험적 발견들의 영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른 근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결론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에게 생애초기에 노출되는 경험들은 성격특징이나 정신병리 모두의 발달에 중요한 결정인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Perris et al., 1994).

예를 들어 부모의 민감성은 인지적 능력, 즉 아동의 지능과 전반적 인지능력의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민주적인 가정”과 “따뜻하고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는 아동의 지능개발을 증가시키는 반면, 부모의 과도한 제한과 통제, 어머니의 과잉보호, 긴장된 부모-아동관계는 낮은 비언어성, 특히 공간적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Bing, 1963; Heilbrun, Harrell & Gillard, 1967; Hess & Shipman, 1965). Busse(1969)는 융통성 있는 사고능력의 발달은, 어머니

의 과잉보호적이고 과잉통제적인 행동이나, 부모의 심한 처벌에 의해 제한되거나 억제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Koestner, Ryan, Bernieri & Holt(1984)는 부모의 통제적인 태도가 자녀의 내적인 동기나 창조성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Baumrind(1967)는 부모-아동관계에 대한 관찰연구에서 3가지 유형을 발견하였다. 유형I은 가장 유능하고 성숙한 아동으로서, 매우 확고하고 사랑하고 요구적이고 이해하는 부모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유형II는 우울하고 비협조적인 아동과 확고하고 처벌적이고 애정없는 부모로 구성된다. 유형III은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아동으로서, 이들의 어머니는 통제가 결여되어 있고, 중간정도 애정적인 어머니였으며, 아버지는 양가적이고 방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Grolnick과 Ryan(1989)은 부모 유형을 3가지 영역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와 참여(involved), 구조의 제공(provision of structure)이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율적인 자기조절과 유능함, 적응, 학교성적이거나 성취와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참여는 성취, 유능함, 행동적인 적응과 관련되어 있었으나, 아버지의 참여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유능감과 적응의 발달은 애정적이고 이해하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과 연관되고, 이는 반대로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은 낮은 유능감과 부적응적 성격유형에 강력한 결정인자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다양한 정신병리의 선행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acobson, Fasman과 DiMascio(1975)는 입원한 우울증환자의 부모는 정상인에 비해 더 학대적이고, 거부적이고 과잉보호적인 반면에, 관대하거나 애정적인 태도는 유의미하게 적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애정없는 통제(affectionless control)’ 즉 부모의 애정이나 돌봄은 적은 반면에 과잉보호적인 태도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Mackinnon, et al. 1993; Parker, 1979a, 1979b), 이와 관련해서 일본 (Sato et al., 1998)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도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공포증환자군에서는 부모 둘 다 감정적 따뜻함이 부족하였고 어머니가 거부적이었으며(Arrindell, Emmelkamp, Monsma & Brillman, 1983), 건강염려증 환자군에서 아버지의 과잉보호가 보고되었고(Parker & Lipscombe, 1980), 정신신체 질환인 천식아이와 부모의 과잉보호와의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Parker & Lipscombe, 1979).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1993)은 어머니의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적었던 집단이 어머니의 돌봄이 적고 과보호가 많았던 집단에 비해 모든 정신병리(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척도)가 유의미하

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허묘연 등(1998)이 실시한 연구에서도 부모 모두의 거부나 높은 기대, 불안, 통제적인 태도는 높은 대인불안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감정적인 지지는 낮은 대인불안과 관련되어 있었다.

부모의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적인 태도는 우울이나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 뿐 아니라,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와도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Rey & Plapp, 1990). 또한 적대적이고 처벌적이고 수치감을 조장하고 거부적이거나 과잉통제적인 양육행동은 공격성의 발달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연구자들간에 일치된 결과이며(Becker, 1964; Perris et al., 1983), 이는 비서구문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Ekblad, 1988).

이외에도 최근에는 정신병리를 가진 청소년들의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분석에서 신체적 학대 및 방치(neglect)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는 우울증 뿐 아니라 품행장애 및 비행과 공격성에 결정적인 위험인자로 밝혀졌다(Cicchetti & Toth, 1995; Kaplan et al. 1998; Lewis, 1992). 반면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나 감독은 품행장애와 비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rehand & Miller, 1997; Wasserman et al., 1996).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발달 및 정신병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적절하고 신뢰롭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최근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및 행동 척도들을 보면, 평가도구들간에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Perris et al., 1994),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학대나 방치, 감독 등의 양육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가 없다. 또한 국내의 양육행동 척도들을 보면, 평가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며(오성심, 이종승, 1982; 이원영, 1983),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평가도구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척도들이 외국의 평가도구들을 그대로 번안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한국적인 독특한 양육행동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이원영, 1983). 기존에 개발된 부모양육행동의 평가도구들이 모두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게 개념적인 타당성이 정립되고, 부모 모두의 양육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로운 평가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임상장면에서 정신과를 방문하는 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개입 및 치료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데에도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유형론적 구성을 따라, 특별한 차원을 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문헌들이나 기존에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 양육행동 척도들에서 구성된 요인들, 즉 '애정', '훈육', '통제', '거부', '보호' 등을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권위주의와 우리나라 부모들이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여지는 '높은 기대'와 '권위주의'의 양육행동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정신병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요인들로서, '신체적 학대'와 '감독', '방치', '비일관성' 등의 양육행동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아동 청소년 전문 정신과의사와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임상심리 대학원생 등이 함께 논의하여 10개의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기존의 문헌 검토와 문화적 요인 및 최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잠재적 요인들은 애정, 거부, 감독, 신체적 학대, 훈육, 방치, 과잉보호, 비일관성, 높은 기대, 과잉통제의 10개 요인이었다. 또한 각 요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타당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방 법

대 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반 인문계 중·고등학교, 총 1,4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정신병리로 인해 임상장면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만 12-18세(중2, 중3, 고1, 고2) 사이의 학생들이었다. 또한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를 골고루 포함하였으며, 강북, 강남, 강서, 강동 등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7개 학교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척도 개발에 사용된 학생은 전체 846명(남자 47.2%, 여자 52.8%)이었고, 교차타당화 및 준거관련타당화에 사용된 학생은 전체 615명(남자 58.9%, 여자 41.1%)이었다.

절 차

부모 양육행동 척도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먼저 응답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실시 대상 중 받은 아버지 응답지를 먼저, 나머지 받은 어머니 응답지를 먼저 제시하였다. 먼저 1차적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위해, 제작된 예비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 질문지의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5-30분이었으며, 수업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후 확인적 요인분석(교차타당화) 및 준거관련(예측) 타당화를 위해서,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와 청소년 자기보고식 문제행동척도(K-YSR: 한국판 Youth Self Report)를 실시하였다. 이 질문지의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20-40분이었으며, 수업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도 구

부모 양육행동

기존에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 양육행동 척도들에서 구성된 요인들 뿐 아니라 최근 정신병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분명히 함으로써 각 요인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문항을 추출, 제작하였다.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2명과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3명의 검토를 거쳐, 각 요인의 개념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된 예비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요인들은 애정, 거부, 감독, 신체적 학대, 훈육, 방치, 과잉보호, 비밀관성, 높은 기대, 과잉통제의 10개 요인으로서, 각각의 요인들은 5개에서 10개의 문항이었고, 총 8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반응방법은 전혀 아니다 1점, 다소 아니다 2점, 다소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등으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

청소년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K-YSR (한국판 Youth Self Report : 이하 K-YSR)을 이용하였다. K-YSR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Youth Self Report-Child Behavior Check List를 오경자와 홍강의, 이혜련(1997)이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비행, 공격성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전체 문제행동증후군을 합산한 것이 총문제행동 점수이다. K-YSR은 1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없다 0점, 가끔

보인다 1점, 매우 심하다 2점 등 3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총문제행동 점수는 바람직한 긍정문항 16개와 문항 2, 4번을 제외한 101개 문항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그 범위는 원점수 0점에서 202점까지이다.

결 과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먼저 예비로 구성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 문항들에 대해 1차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고려하였으며, 잠정적으로 구성된 각 요인 내 문항-총점간 상관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평균이 1.5미만이거나 표준편차가 1미만인 문항, 문항간 상관이 .6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문항, 그리고 요인 내 문항-총점간 상관이 .20 미만인 문항을 제거될 문항의 준거로 사용하였다.

1차 문항분석 이후 남은 74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 전체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이전에, 중·고등학교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중·고등학교 집단 각각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요인의 수와 측정변수가 대체로 유사하여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846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AS를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측정변수의 측정결과에 공통분산 뿐 아니라 문항 특유의 분산과 측정시의 오차가 포함된 고유분산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공통요인분석의 모형을 선택하였다. 먼저 예비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잠정적인 구성요인이 10개였으므로, 요인의 수를 10개 및 11개로 지정하고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하였다. 공통분산의 추정치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제곱치)를 사용하였고,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서 반복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잠정적인 구성요인 중 거부와 과잉보호 요인이 다른 요인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다시 공통분산의 추정치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제곱치)를 사용하고,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서 단일 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누적분산비율, 스크리 검사, 그리고 해석가능성의 기준을 고려하여 8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때 전체 공통분산 가운데 설명되는 공통분산의 비율은 아버지 척도가 90%, 어머니 척도가 89%였다.

양육행동의 요인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을 것이 기대되었으므로 구성된 요인들간의 상관을 검토한 결과, 아버지 척도의 경우 .67까지, 어머니 척도의 경우 .62까지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있었다. 따라서 Harris-Kaiser(이후 HK)의 사각회전방식으로 지표를 .5부터 .0까지 줄여가면서, 회전 전의 요인간 원상관과 사각회전 후 요인간 상관의 유사해질 때까지 회전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원상관과 회전후 상관이 아버지 척도의 경우 HK 지표가 .0일 때, 어머니 척도의 경우 .1일 때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사각회전을 멈추고 요인구조를 해석하였다. 최종요인행렬과 요인상관행렬은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는데, 수정된 양육행동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진한 역상으로 표시하였고, 수정된 척도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50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내는 문항은 중간정도의 역상으로 표시하였다.

먼저 표 1과 표 2에 나타난 요인간 상관을 보면, .60이상까지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있었다. 이들 요인의 문항들을 보면, 애정과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과 과잉간섭과 학대,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요인이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을 분리한 이유는 문헌연구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최근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애착과 관련된 문헌들에서 합리적 설명과 비밀관성, 학대, 과잉간섭을 분리된 개념으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애착 및 병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실제 임상 장면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평가해줌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치료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리시키기로 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요인내 문항을 선정하였는데, 표 1과 표 2의

구조계수행렬에서 .5를 초과하는 계수들과, 여러 요인간의 구조계수를 고려하여 이중으로 부하량이 겹치지 않는 문항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문항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요인 내에서 보다 일치된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요인을 선정한 후, 이들의 문항-요인총점간 상관과 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고려하였는데, 선정된 문항들이 모두 내적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을 참고로 아버지 양육행동척도의 각 요인은, 요인1 '감독', 요인2 '합리적 설명', 요인3 '비밀관성', 요인4 '과잉기대', 요인5 '과잉간섭', 요인6 '학대', 요인7 '방치', 요인8 '애정'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또한 표 2를 참고로 어머니 양육행동척도의 요인들은, 요인1 '과잉간섭', 요인2 '과잉기대', 요인3 '학대', 요인4 '애정', 요인5 '합리적 설명', 요인6 '감독', 요인7 '방치', 요인8 '비밀관성'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아버지 및 어머니 양육행동척도의 요인별 문항은 표 3에 제시하였으며, 각 요인별 문항수와 내적일치도(Cronbach's α), 평균, 표준편차 및 각 요인의 요인분산퍼센트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버지 척도는 7개 요인에서 내적일치도가 .70에서 .86, 어머니 척도에서는 6개 요인에서 .75에서 .83으로 만족스럽게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척도에서 방치요인이 .69, 어머니 척도에서 비밀관성과 방치요인이 약 .67로 내적일치도가 다소 낮았으나, 태도나 행동 경향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표 4에서 아버지 척도 및 어머니 척도에서 각 요인이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은 3.83%에서 7.55%로 낮았고, 상대적으로 요인간에 공유되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 8.92%에서 30.08%로 높았다. 이는 요인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척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표 1. 아버지 양육행동척도의 요인간 상관과 구조계수(상관계수)

요인간 상관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1	1.00000							
요인 2	0.46116	1.00000						
요인 3	-0.12190	-0.29171	1.00000					
요인 4	-0.02865	-0.09900	0.44469	1.00000				
요인 5	0.02006	-0.16390	0.65797	0.60127	1.00000			
요인 6	-0.05554	-0.25720	0.64445	0.34788	0.61868	1.00000		
요인 7	-0.42449	-0.60602	0.44564	0.12038	0.23358	0.43866	1.00000	
요인 8	0.38381	0.64747	-0.52353	-0.30559	-0.45312	-0.56021	-0.65529	1.00000

허묘연

구조계수 (상관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F23	0.73929	0.33138	-0.11941	-0.06459	-0.02709	-0.04786	-0.33294	0.29729
F13	0.71816	0.35461	-0.02696	0.00125	0.06087	-0.01118	-0.30774	0.25742
F3	0.64196	0.27203	-0.12135	-0.03160	-0.03427	-0.05896	-0.22890	0.22248
F43	0.65622	0.38428	-0.16537	-0.05966	-0.05610	-0.13135	-0.34981	0.34808
F33	0.46591	0.32958	-0.12876	-0.09265	0.00978	-0.13109	-0.32441	0.37138
F35	0.36793	0.69813	-0.19428	-0.11134	-0.12185	-0.17343	-0.39592	0.45168
F15	0.33187	0.67303	-0.27739	-0.06675	-0.12148	-0.17744	-0.40545	0.45541
F53	0.25821	0.67853	-0.33657	-0.16317	-0.27344	-0.33908	-0.45620	0.52862
F45	0.34913	0.71425	-0.34130	-0.21994	-0.30087	-0.33430	-0.47218	0.58083
F25	0.28777	0.57496	-0.24615	-0.06116	-0.10992	-0.17638	-0.33518	0.39311
F55	0.21787	0.48498	-0.12909	-0.03489	-0.12537	-0.12806	-0.38451	0.28620
F75	0.30833	0.64078	-0.33554	-0.19489	-0.30928	-0.40603	-0.49838	0.63868
F63	0.23571	0.27411	0.02579	-0.00033	0.04994	0.03461	-0.17131	0.06564
F77	-0.05770	-0.01218	0.32290	0.19496	0.35566	0.36464	0.17889	-0.24120
F28	-0.04837	-0.18502	0.68331	0.26992	0.36974	0.36248	0.24784	-0.28094
F8	-0.12275	-0.13578	0.59799	0.23369	0.33985	0.24895	0.24808	-0.22596
F18	-0.12092	-0.35451	0.62308	0.30071	0.43599	0.50791	0.41636	-0.45125
F38	0.05406	-0.03497	0.49955	0.29549	0.45505	0.42362	0.21516	-0.21828
F58	-0.10044	-0.10120	0.44251	0.24721	0.39304	0.32251	0.19694	-0.29840
F32	-0.03943	-0.23888	0.53112	0.24781	0.43949	0.51217	0.34896	-0.45869
F48	-0.14149	-0.18562	0.50493	0.33886	0.46217	0.47779	0.31473	-0.35229
F59	-0.03753	-0.03974	0.33851	0.78655	0.44245	0.27315	0.09128	-0.21116
F9	0.01529	0.01711	0.18649	0.61461	0.25785	0.18811	-0.00136	-0.05229
F49	-0.05252	-0.08482	0.29168	0.69777	0.42754	0.20484	0.06342	-0.19281
F39	-0.01399	-0.14062	0.39000	0.67599	0.48595	0.26522	0.15507	-0.31683
F79	0.00285	-0.00375	0.31045	0.58302	0.35121	0.22803	0.09661	-0.18210
F69	-0.08673	-0.15127	0.34191	0.68577	0.53230	0.29334	0.11882	-0.26539
F29	0.07010	-0.12165	0.25896	0.62360	0.44473	0.20106	-0.03299	-0.27108
F73	-0.08685	-0.17108	0.38559	0.58837	0.42286	0.26861	0.22772	-0.30910
F57	-0.04808	-0.10781	0.31106	0.34216	0.60514	0.27767	0.12717	-0.19311
F17	0.09536	0.06319	0.14850	0.24129	0.43546	0.09021	-0.02824	0.05396
F67	-0.06511	-0.07958	0.31818	0.35202	0.58100	0.28838	0.05542	-0.24276
F80	0.04765	-0.18343	0.49823	0.43413	0.71835	0.50690	0.21458	-0.42192
F64	-0.00145	0.02836	0.27603	0.34878	0.53761	0.28028	0.01129	-0.20954
F70	0.03152	-0.23394	0.51473	0.49760	0.72203	0.50833	0.22814	-0.42556
F37	0.16575	0.12572	0.24303	0.29801	0.47154	0.17332	-0.09819	-0.03248
F7	-0.02823	-0.14164	0.27948	0.17211	0.41600	0.22217	0.19048	-0.18048
F30	0.08974	-0.17192	0.49095	0.44427	0.67988	0.46651	0.13588	-0.37706
F20	-0.04606	-0.12054	0.45560	0.40940	0.62356	0.44224	0.14884	-0.40790
F27	0.13073	0.11520	0.12597	0.17576	0.29336	0.06274	-0.07778	0.15192
F10	0.03674	-0.03102	0.30357	0.20621	0.42974	0.30882	0.01438	-0.16099
F52	-0.15992	-0.35184	0.53340	0.35389	0.58619	0.52639	0.44183	-0.57206
F50	-0.03605	-0.26248	0.43800	0.41845	0.55976	0.48710	0.33373	-0.44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구조계수 (상관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F19	0.02600	-0.06319	0.49293	0.28332	0.56779	0.54088	0.15333	-0.39413
F34	-0.02663	-0.22421	0.32006	0.18065	0.34359	0.70411	0.33522	-0.30437
F14	0.00229	-0.06092	0.34945	0.19720	0.33370	0.68872	0.24876	-0.33029
F44	-0.03392	-0.24079	0.42487	0.24037	0.37830	0.68695	0.28417	-0.34773
F4	-0.09096	-0.11628	0.40677	0.16151	0.31792	0.65997	0.22878	-0.41654
F65	-0.06074	-0.15733	0.45846	0.28786	0.53507	0.74246	0.30046	-0.42851
F24	0.01980	-0.11969	0.19769	0.07584	0.19731	0.42504	0.17962	-0.10863
F11	-0.01000	-0.08911	0.48750	0.27256	0.49504	0.65822	0.21637	-0.36882
F62	0.01990	-0.09315	0.45581	0.30947	0.52655	0.62308	0.19370	-0.36972
F42	-0.06559	-0.32931	0.55004	0.25522	0.38312	0.56611	0.46332	-0.42809
F12	0.03448	-0.13716	0.50235	0.22068	0.49428	0.54963	0.27312	-0.37210
F66	-0.21511	-0.38955	0.23671	0.06546	0.12423	0.20007	0.57182	-0.36959
F26	-0.18063	-0.20933	0.19463	0.01383	0.07616	0.16711	0.46858	-0.26705
F56	-0.18666	-0.27791	0.25852	0.23397	0.20061	0.28667	0.53920	-0.45819
F36	-0.28466	-0.23651	0.08480	-0.22301	-0.09010	0.12599	0.45390	-0.15712
F46	-0.34321	-0.48340	0.41878	0.21533	0.28393	0.36653	0.65881	-0.59300
F6	-0.28923	-0.28780	0.36117	0.16324	0.28612	0.35332	0.51016	-0.46862
F76	-0.06024	-0.26614	0.27765	0.11715	0.25949	0.35299	0.40775	-0.33516
F22	-0.15595	-0.31321	0.42621	0.25974	0.36933	0.50511	0.51174	-0.49059
F16	-0.31061	-0.39350	0.30224	0.18447	0.17292	0.27966	0.50205	-0.50712
F68	-0.13062	-0.19911	0.40899	0.22810	0.35201	0.39200	0.36541	-0.31895
F31	0.27714	0.41109	-0.11831	-0.07471	-0.07710	-0.15263	-0.36434	0.60749
F71	0.27048	0.47999	-0.15832	-0.07529	-0.11322	-0.24425	-0.50408	0.68101
F1	0.31281	0.45876	-0.30883	-0.13430	-0.23245	-0.32425	-0.43636	0.66679
F54	0.28850	0.55454	-0.35495	-0.17690	-0.32432	-0.42374	-0.54809	0.71843
F74	0.32111	0.62927	-0.35293	-0.12890	-0.27861	-0.34086	-0.59037	0.72828
F51	0.24224	0.44621	-0.32610	-0.03664	-0.33878	-0.34305	-0.38976	0.58548
F41	0.40027	0.47813	-0.18922	-0.08821	-0.10755	-0.15823	-0.42074	0.51823
F21	0.29079	0.53982	-0.45419	-0.20099	-0.39520	-0.44577	-0.47537	0.64756
F40	0.03195	-0.01994	0.37707	0.40486	0.48605	0.41628	0.14603	-0.34852
F2	-0.06921	-0.15261	0.43914	0.23289	0.38862	0.45026	0.19203	-0.40941

표 2. 어머니 양육행동척도의 요인간 상관과 구조계수(상관계수)

요인간 상관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1	1.00000							
요인 2	0.59321	1.00000						
요인 3	0.50844	0.31819	1.00000					
요인 4	0.39304	-0.23695	-0.43704	1.00000				
요인 5	0.24256	-0.17803	-0.23808	0.64398	1.00000			
요인 6	0.07242	-0.01019	-0.15333	0.33268	0.42947	1.00000		
요인 7	0.12153	-0.00497	0.33437	-0.52130	-0.49871	-0.41183	1.00000	
요인 8	0.63077	0.46995	0.59752	-0.52942	-0.34957	-0.15278	0.33874	1.00000

허묘연

구조계수 (상관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M17	0.57022	0.34161	0.23671	-0.08697	-0.06025	0.03073	0.03111	0.24319
M57	0.62943	0.37047	0.28788	-0.23254	-0.19568	-0.06125	0.08744	0.36951
M67	0.65835	0.38875	0.31819	-0.23837	-0.25433	-0.08986	0.07962	0.41909
M27	0.39000	0.21426	0.08222	0.02016	0.12246	0.01185	-0.02551	0.07296
M80	0.71514	0.44771	0.39573	-0.44486	-0.31144	-0.07637	0.16599	0.58764
M70	0.71629	0.46640	0.44049	-0.40902	-0.29295	-0.08779	0.13457	0.55581
M30	0.66299	0.42758	0.33541	-0.38399	-0.22053	0.00336	0.03249	0.50866
M7	0.42967	0.19230	0.18168	-0.19374	-0.15561	-0.09138	0.16167	0.26479
M37	0.53756	0.38967	0.22469	-0.09619	0.01488	-0.00367	-0.06124	0.32252
M64	0.52821	0.36360	0.19137	-0.19785	-0.08366	0.00114	-0.06180	0.30801
M50	0.53190	0.38726	0.42127	-0.36772	-0.34070	-0.10816	0.27380	0.50642
M52	0.52078	0.31066	0.46501	-0.54683	-0.38655	-0.22330	0.36468	0.50933
M20	0.55453	0.42225	0.40665	-0.41214	-0.22617	-0.08428	0.06800	0.48259
M40	0.45155	0.35550	0.36858	-0.22829	-0.12261	0.08293	0.03869	0.40575
M59	0.42749	0.77482	0.25075	-0.15975	-0.09717	-0.00761	-0.03317	0.30503
M9	0.27571	0.61588	0.15506	-0.00549	0.03032	0.05570	-0.06897	0.17717
M79	0.36788	0.62485	0.25140	-0.16975	-0.06020	0.00608	0.05332	0.32436
M49	0.45180	0.68163	0.18060	-0.13961	-0.18314	-0.03057	-0.00413	0.33744
M69	0.49567	0.66725	0.22845	-0.19620	-0.26737	-0.04842	0.00323	0.39184
M29	0.46953	0.63531	0.18267	-0.23214	-0.15059	0.06055	-0.13289	0.36935
M73	0.40798	0.54982	0.22657	-0.23865	-0.17501	-0.14365	0.15645	0.34143
M39	0.51751	0.66062	0.29826	-0.28672	-0.25019	0.02995	-0.00199	0.48002
M14	0.16988	0.14672	0.60666	-0.18339	-0.05077	-0.12163	0.17127	0.22054
M4	0.20352	0.14535	0.58199	-0.28038	-0.11028	-0.04304	0.14004	0.31115
M11	0.34089	0.24573	0.58501	-0.22960	-0.09992	-0.02615	0.13347	0.40366
M44	0.31388	0.17663	0.55794	-0.26204	-0.20446	-0.12087	0.21190	0.34752
M65	0.43325	0.22126	0.61371	-0.29633	-0.23918	-0.05532	0.22891	0.42292
M34	0.21231	0.07067	0.48422	-0.14659	-0.13013	-0.12134	0.29983	0.21928
M62	0.42937	0.27649	0.57286	-0.22091	-0.13880	-0.05451	0.11033	0.46969
M24	0.10221	0.06945	0.32466	-0.05397	-0.05775	-0.17964	0.16170	0.07760
M19	0.52713	0.36155	0.55747	-0.36926	-0.16313	-0.01220	0.08703	0.52915
M18	0.39353	0.27427	0.52111	-0.47998	-0.35302	-0.15901	0.35252	0.56042
M2	0.31932	0.25563	0.41798	-0.34025	-0.12114	-0.12373	0.17552	0.41940
M10	0.38584	0.27441	0.36965	-0.22551	-0.09913	-0.00325	0.07058	0.35152
M71	-0.10945	-0.06880	-0.19237	0.70622	0.46439	0.21685	-0.39842	-0.2274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구조계수 (상관계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M31	-0.13895	-0.11923	-0.14793	0.61288	0.40682	0.21860	-0.28842	-0.22612
M1	-0.26131	-0.11743	-0.26601	0.63939	0.38451	0.25089	-0.33431	-0.35634
M51	-0.22382	0.00551	-0.26818	0.60868	0.42985	0.27277	-0.32279	-0.28974
M74	-0.26392	-0.13282	-0.32824	0.70956	0.59434	0.29775	-0.50389	-0.32659
M54	-0.26934	-0.12237	-0.35917	0.67178	0.54031	0.23911	-0.49634	-0.33693
M21	-0.37014	-0.23671	-0.43174	0.58112	0.43273	0.28902	-0.36713	-0.42783
M16	0.20435	0.23286	0.29852	-0.50664	-0.44625	-0.33074	0.44807	0.31345
M12	0.42643	0.26763	0.49004	-0.47481	-0.16886	-0.16069	0.16720	0.50826
M35	-0.19112	-0.14385	-0.15227	0.41859	0.66334	0.33882	-0.31151	-0.24344
M45	-0.27784	-0.17208	-0.23111	0.52453	0.71511	0.32375	-0.35406	-0.34590
M15	-0.08572	-0.06231	-0.07711	0.38383	0.64237	0.40157	-0.33494	-0.17627
M53	-0.24403	-0.15017	-0.27052	0.48152	0.64457	0.28313	-0.41668	-0.30463
M25	-0.12820	-0.07279	-0.19315	0.35079	0.53843	0.33965	-0.25081	-0.16622
M75	-0.29971	-0.22219	-0.29324	0.60272	0.64167	0.19650	-0.39174	-0.34843
M55	-0.12946	-0.04096	-0.06026	0.32933	0.45105	0.23847	-0.35462	-0.08805
M41	-0.08792	-0.06484	-0.11336	0.46439	0.50306	0.30920	-0.28157	-0.25027
M77	0.29540	0.14037	0.25634	-0.22821	-0.03270	-0.04677	0.14928	0.32800
M23	-0.09860	-0.06852	-0.16195	0.24838	0.32988	0.71757	-0.25602	-0.15890
M13	-0.03421	0.02223	-0.11694	0.26713	0.36770	0.71753	-0.32412	-0.10080
M3	-0.08132	-0.02242	-0.11376	0.24845	0.25611	0.66483	-0.30637	-0.13468
M43	-0.06574	-0.01386	-0.08427	0.29214	0.39744	0.59445	-0.33100	-0.16488
M33	-0.06721	-0.05219	-0.18344	0.25988	0.26038	0.33766	-0.35682	-0.14558
M66	0.13534	0.03084	0.17868	-0.32559	-0.29856	-0.20084	0.55967	0.21636
M36	-0.07709	-0.23615	0.11539	-0.17316	-0.16659	-0.21302	0.52253	0.04898
M26	0.05179	0.02545	0.13507	-0.23787	-0.21050	-0.18338	0.46419	0.26555
M76	0.18118	0.11734	0.29332	-0.33992	-0.29067	-0.17698	0.46853	0.25401
M6	0.19780	0.12528	0.28046	-0.43423	-0.30840	-0.29031	0.52113	0.30947
M46	0.22506	0.15948	0.24468	-0.48831	-0.48958	-0.25883	0.51943	0.38318
M22	0.21626	0.20679	0.36738	-0.33686	-0.26605	-0.17659	0.43372	0.40307
M28	0.34826	0.26620	0.31311	-0.28783	-0.22252	-0.11038	0.23391	0.63468
M8	0.29266	0.18341	0.23868	-0.21333	-0.17443	-0.13819	0.19792	0.53347
M58	0.31539	0.24192	0.29721	-0.25037	-0.13389	-0.13963	0.16221	0.48738
M38	0.34013	0.24961	0.35347	-0.29513	-0.17749	-0.07495	0.19873	0.48039
M42	0.35362	0.20217	0.47556	-0.34438	-0.33718	-0.11073	0.34896	0.53660
M48	0.41455	0.30953	0.44590	-0.35760	-0.24717	-0.15443	0.29388	0.54420
M63	0.04311	0.05082	0.03372	0.07857	0.23674	0.27981	-0.18960	0.14017
M32	0.35466	0.18672	0.41189	-0.43987	-0.23609	-0.11528	0.30219	0.48013
M68	0.26240	0.18565	0.32430	-0.27906	-0.31217	-0.18470	0.27850	0.37777

허묘연

표 3. 최종 부모 양육행동척도의 요인별 문항

요인	문항번호	문항내용
요인1 (감독)	F(M)23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셨다
	F(M)13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F(M)3	내가 밤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F(M)43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셨다
요인 2 (합리적설명)	F(M)45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주셨다
	F(M)35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F(M)53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F(M)15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셨다
요인 3 (비일관성)	F(M)25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 주셨다
	F(M)28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었다
	F(M)8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안치셨다
요인 4 (과잉기대)	F(M)18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셨다
	F(M)48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게 대한 태도가 평소와 달라지셨다
	F(M)59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F(M)49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요인 5 (과잉간섭)	F(M)9	나에게 최고가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F(M)69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러웠다
	F(M)29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셨다
	F(M)79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다
	F(M)80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하셨다
	F(M)70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셨다
요인 6 (학대)	F(M)30	내가 알아서 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하셨다
	F(M)20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았다
	F(M)67	너무 걱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었다
	F(M)57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셨다
	F(M)64	나에 대해 덜 걱정하셨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F(M)11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로 벌을 주셨다
요인 7 (방치)	F(M)65	내가 잘못하면 때부터 드셨다
	F(M)34	작은 잘못에도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F(M)44	화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심하게 때리셨다
	F(M)14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
	F(M)4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요인 8 (애정)	F(M)56	나보다는 바깥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F(M)66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었다
	F(M)46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다
	F(M)6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으셨다
요인 8 (애정)	F(M)76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F(M)71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
	F(M)54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셨다
	F(M)74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F(M)1	나에게 칭찬을 잘 해주셨다
F(M)51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F(M)21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	

표 4. 최종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요인별 문항수,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및 요인분산비율

요인	문항수	내적일치도	평균	표준편차	독자분산(9%)	공유분산(%)
아버지 척도						
감독	4	.79	9.62	2.96	5.51	8.92
합리적설명	5	.81	14.30	3.29	5.46	20.30
비일관성	4	.70	7.53	2.45	3.42	29.32
과잉기대	6	.82	13.59	4.15	7.55	16.78
과잉간섭	7	.82	14.21	4.51	7.16	30.08
학대	6	.86	8.48	3.24	7.17	28.83
방치	5	.69	8.86	2.64	3.83	23.53
애정	6	.84	17.00	3.96	5.89	33.07
어머니 척도						
감독	4	.77	11.08	2.77	5.68	9.18
합리적설명	5	.79	14.51	3.01	6.00	22.10
비일관성	4	.67	7.75	2.36	4.34	31.13
과잉기대	6	.82	13.70	4.07	7.24	17.93
과잉간섭	7	.83	15.33	4.72	7.41	27.92
학대	6	.75	8.21	2.57	6.78	22.59
방치	5	.67	8.02	2.36	4.91	17.08
애정	6	.82	17.93	3.54	5.86	29.30

수정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교차타당화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얻은 모형이 표본에 종속된 모형인지 아니면 다른 표본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인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PC의 AMOS(Analysis of Moment Analysis)가 제공하는 교차타당화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은 총 615명이었다. 43개의 측정변수가 8개의 이론변수를 잘 나타내는지 알기 위해 각 측정변수를 해당 되는 요인(이론변수)에만 부하되도록 하였으며, 잔차들간에는 모두 상관이 없고 8개의 요인들간에는 상관이 존재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계산방법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es를 이용하였다.

수정된 부모 양육행동의 8개 요인구조 모형을 검증하는데 지표가 되는 전반적인 부합지수들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초부합치, 조정부합치, 표준부합치, 원소간 평균차이, 원소간 근접오차를 모형검증을 위한 해석에 사용하여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잘 맞는지 검토하였다. 전반적인 부합지수들은 보통 모형을 수용할만한 부합지수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90에 약간 미달하는 수치를 보였으나, 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지수인 원소간 평균차이(RMR)와 원소간근접오차(RMSEA)가 .05이하로 나타나 검증모형을 수용할만하다고 판단되었다.

표 5. 교차타당화에 사용된 최종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검증 모형에 대한 부합도 지수

검증 모형	χ^2	자유도	RMR	RMSEA	GFI	AGFI	NFI
아버지 척도	1865.43	832	.042	.045	.875	.858	.828
어머니 척도	1828.20	832	.039	.044	.878	.862	.819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준거관련(예측) 타당도 분석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가 실제 청소년이 나타내고 있는 문제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체크리스트(K-YSR)를 실시하였고,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자료분석에는 Windows 용 SPSS/PC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먼저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설명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종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요인 중 사전연구들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 즉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요인을 역으로 채점하여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 전체를 합산하였다.

이러한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아버지 척도의 총점과 어머니 척도의 총점)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을 예측해주는 변수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총점이 먼저 투입되었고, 이를 포함한 1단계의 분석 후에 R^2 증가분이 .088로 유의미하였으며(Finc(1,591)=56.730, $p<.001$), 2단계 분석에서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 총점이 투입된 후에 R^2 증가분이 .012로 유의미하였다(Finc(1,590)=32.477, $p<.001$). 즉 부모의 양육행동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유의미하게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을 예측하였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을 9.9% 설명해 주었다.

부가적으로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각 하위요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을 예측해주는 변수로 아버지 양육행동의 8요인 중 과잉간섭 요인이 가장 먼저 투입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1단계의 분석 후에 R^2 증가분이 .079로 유의미하였으며(Finc(1,591)=50.421, $p<.001$), 2단계 분석에

서 방치가 투입된 후에 R^2 증가분이 .030으로 유의미하였고(Finc(1,590)=19.723, $p<.001$), 3단계에서는 애정이 투입된 후에 R^2 증가분이 .007로 유의미하였으며(Finc(1,589)=4.412, $p<.05$), 4단계에서 감독이 투입된 후에 R^2 증가분이 .008로 유의미하였고(Finc(1,588)=3.373, $p<.05$), 5단계에서 비밀관성이 투입된 후에 R^2 증가분이 .006으로 유의미하였다(Finc(1,587)=4.081, $p<.05$).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과잉간섭, 방치, 애정, 감독, 비밀관성 요인의 순서로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을 잘 예측하였으며, 5개 요인이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을 12.9% 설명하였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에서는 마찬가지로 과잉간섭 요인이 가장 먼저 투입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1단계의 분석 후에 R^2 증가분이 .097로 유의미하였으며(Finc(1,603)=64.484, $p<.001$), 2단계 분석에서 방치가 투입된 후에 R^2 증가분이 .022로 유의미하였고(Finc(1,602)=15.011, $p<.001$), 3단계에서는 비밀관성이 투입된 후에 R^2 증가분이 .010으로 유의미하였으며(Finc(1,601)=7.227, $p<.01$), 4단계에서 애정이 투입된 후에 R^2 증가분이 .007로 유의미하였다(Finc(1,600)=4.822, $p<.01$).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잉간섭, 방치, 비밀관성, 애정의 순서로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을 잘 예측하였고, 이들 4개 요인의 설명량은 13.6%였다.

표 6.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총점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수	총문제행동 (DV)	어머니 척도 총점	아버지 척도 총점	β	S_B	sr^2 (증가분)
(사례수=593)						
어머니 척도 총점	.30	1.00		.30	8.92	.088**
아버지 척도 총점	.29	.75	1.00	.16	8.87	.012**
					회귀상수 = 38.95	
평균	55.58	88.43	85.02			
표준편차	9.33	17.27	15.57			
	$R^2=.099$	Adj $R^2=.096$	$R = .315$			

** $p<.01$, *** $p<.001$

표 7.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하위요인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수	B	β	S_B	sr^2 (증가분)
아버지				
과잉간섭	47.40	.28	8.96	.079***
방치	43.44	.18	8.82	.030***
애정	36.64	.11	8.80	.007*
감독	39.24	-.10	8.76	.008*
비밀관성	38.01	.10	8.74	.006*
	$R^2=.129$	Adj $R^2=.122$	$R = .359$	
어머니				
과잉간섭	46.34	.31	8.91	.097***
방치	42.47	.15	8.81	.022***
비밀관성	41.30	.13	8.76	.010**
애정	33.27	.11	8.73	.007*
	$R^2=.136$	Adj $R^2=.130$	$R = .369$	

* $p<.05$, ** $p<.01$, *** $p<.001$

판별분석

청소년 문제행동집단과 문제행동을 나타내지 않는 집단, 두 집단을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 총점이 유의미하게 변별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고, 부가적으로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각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두 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행동 집단의 분류는 K-YSR의 총문제행동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25%에 속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K-YSR의 총문제행동 점수에서 하위 25%에 속하는 사례(162명)는 비문제행동집단으로, 상위 25%에 속하는 사례 (167명)는 문제행동집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총 사례수는 329명이었으며, K-YSR의 총문제행동 점수의 상위 25%에 속하는 집단에 대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총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 및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을 예측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 총점에 의한 판별분석 결과, 하나의 판별함수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318이었고, 유의도 검증결과가 유의미하였다($\chi^2=34.743$, $df=1$, $p<.001$). 또한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의 변산성(variability)을 100% 설명해 주었다. 그러므로 이 판별함수로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판별함수에 의해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이 최대한 구분되는데, 문제행동집단의 집단중심점은 .329, 비문제행동집단의 중심점은 -.339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으로 판별분석을 한 결과, 하나의 판별함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이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341이었고, 유의도 검증결과가 유의미하였다($\chi^2=41.008$, $df=1$, $p<.001$). 또한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의 변산성(variability)을 100%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이 판별함수로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판별함수로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을 구분하였는데, 문제행동집단의 중심점은 .353, 비문제행동집단의 중심점은 -.371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으로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에 대한 분류화절차를 사용한 결과, 분류적중률은 최대 우연기준치인 50%보다 높아, 전체 329명 중에 65.7%가 정확히 분류되었는데, 문제행동집단은 62.3%가 예측된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비문제행동집단은 69.1%가 예측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총점에 의한 분류화절차의 결과, 분류적중률이 최대 우연기준치인 50%보다 높아, 전체 329명 중에 65.0%가 정확히 분류되었는데, 문제행동집단은 64.3%가 예측된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비문제행동집단은 65.6%가 예측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부가적으로 예측변수를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하여, 8개의 예측변수를 포함한 판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판별분석의 유형은 통계적 증거에 의해 예측변수의 투입순서를 결정하는 단계적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

하였다. 각각 하나의 판별함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의 경우,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391이었으며 유의도 검증결과가 유의미하였다($\chi^2=54.091$, $df=3$, $p<.001$). 이 판별함수는 두 집단의 변산성을 100% 설명해 주었으므로 이 판별함수로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수로 하여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와와의 상관관계 구조행렬을 보면, 비문제행동집단과 문제행동집단을 가장 잘 판별하는 판별변수는 방치와 과잉간섭, 애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문제행동집단이 비문제행동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과잉간섭과 방치는 더 많이 받은 반면, 애정은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경우,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는 .446이었고, 유의도 검증결과가 유의미하였다($\chi^2=73.125$, $df=4$, $p<.001$). 이 판별함수는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의 변산성을 100% 설명해 주었으므로 이 판별함수로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수로 한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와와의 상관관계 구조행렬을 보면, 비문제행동집단과 문제행동집단을 가장 잘 판별하는 판별변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잉간섭, 방치, 애정과 비밀관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문제행동집단이 비문제행동집단에 비해 어머니의 과잉간섭과 방치, 비밀관성은 더 많이 받은 반면, 애정은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중 방치, 과잉간섭, 애정 요인이 포함된 판별함수는 두 집단을 최대한 구분하는데, 문제행동집단의 중심점은 .417, 비문제행동집단의 중심점은 -.430이었다. 분류화 절차에서 전체의 69.9%가 정확히 분류되었는데, 문제행동집단은 66.5%, 비문제행동집단은 73.5%가 예측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중 과잉간섭, 방치, 애정, 비밀관성 요인이 포함된 판별함수는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을 최대한 구분하는데, 문제행동집단의 중심점은 .485, 비문제행동집단의 중심점은 -.509였다. 분류화 절차에서는 전체의 73.1%가 정확히 분류되었는데, 문제행동집단은 71.9%, 비문제행동집단은 74.2%가 예측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8. 부모양육행동 척도 총점에 의한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의 분류

총문제행동 점수	아버지양육행동	어머니양육행동	사례수
	총점 평균 (표준편차)	총점 평균 (표준편차)	
상위 25%	94.05 (18.71)	90.23 (15.60)	167
하위 25%	82.31 (16.31)	79.40 (14.27)	162
전 체	88.27 (18.50)	84.94 (15.89)	329

표 9. 판별함수와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각 요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예측변수	함수1 (구조행렬)	방치	과잉간섭	비일관성	학대	과잉기대	애정	합리적설명	감독
아버지척도									
방치*	.78	1.00							
과잉간섭	.71	.25	1.00						
비일관성	.51	.44	.47	1.00					
학대	.40	.34	.43	.48	1.00				
과잉기대	.39	.19	.52	.33	.31	1.00			
애정*	-.36	-.59	-.41	-.44	-.44	-.28	1.00		
합리적설명	-.31	-.45	-.26	-.39	-.25	-.16	.61	1.00	
감독	-.18	-.32	-.05	-.09	-.00	-.03	.33	.40	1.00
어머니척도									
과잉간섭	.74	1.00							
비일관성	.72	.40	1.00						
방치	.53	.10	.33	1.00					
과잉기대	.43	.55	.28	.01	1.00				
학대	.35	.36	.39	.19	.26	1.00			
합리적설명	-.30	-.25	-.37	-.38	-.13	-.31	1.00		
애정	-.27	-.36	-.39	-.56	-.14	-.37	.55	1.00	
감독	-.08	-.06	-.08	-.26	-.00	-.16	.38	.32	1.00

* 단계적 판별분석에서 투입된 요인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학문적 연구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 타당화하는 것이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요인 구조로 접근하여 잠재적인 구성요인의 분류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화 검증을 하였다.

먼저 이론적 틀에 따라 잠재적으로 구성된 부모양육행동 척도에 대해, 일반 중·고생 846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요인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각회전을 하였다.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내적일치도를 통해 8요인 43문항으로 구성된 수정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얻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원래 분류된 요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은 없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구성하였던 요인 중 거부 요인이 여러 다른 요인으로 분산되거나 학대 요인에 포함되었고, 과잉보호와 과잉간섭의 두요인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각 요인을 명명해보면,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의 요인1은 ‘감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요인2는 ‘합리적 설명’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며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요인3은 ‘비일관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된다. 요인4는 ‘과잉기대’로 명명하였다. 이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요인5는 ‘과잉간섭’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에 포함된 문항은 예비척도에서 구성되었던 과잉보호와 과잉통제의 두 요인으로 양분되는 내용인데, 문항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요인6은 ‘학대’로 명명하였다. 이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상이라는 결과가 남는 양육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요인7은 ‘방치’로 명명하였다. 이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요인8은 ‘애정’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

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마찬가지로 같은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요인에 아버지 문항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었으나,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묶인 요인의 순서가 달랐다. 즉 요인1은 ‘과잉간섭’, 요인2는 ‘과잉기대’, 요인3은 ‘학대’, 요인4는 ‘애정’, 요인5는 ‘합리적 설명’, 요인6은 ‘감독’, 요인7은 ‘방치’, 요인8은 ‘비일관성’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가 표본에 종속되지 않고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인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일반 중고생 615명이었고, 분석방법은 AMOS가 제공하는 교차타당화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수정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8요인 구조가 잘 수렴되며, 일반화될 수 있는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교차타당화에 의해 구성된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실제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대한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해 준거관련 타당화를 분석하였다. 준거관련 타당화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 척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예측해주는지 알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가적으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상위 25%를 문제행동집단으로 명명하고 하위 25%를 비문제행동집단으로 명명하여, 이 두 집단이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에 의해 잘 변별되는지 알기 위해 그리고 부가적으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어떤 하위요인이 두 집단을 잘 변별하는지 상대적인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중 단순회귀분석 결과, 최종 아버지 및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은 실제 청소년의 정신병리를 반영하는 총문제행동 점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 총점이 더 많은 양의 청소년 총문제행동을 설명하였다. 이것의 의미는 부모 양육행동의 병리적인 경향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정신병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최종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예측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아버지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중 과잉간섭, 방치, 애정, 감독, 비일관성의 순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과잉간섭, 방치, 비일관성, 애정의 순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즉 아버지의 과잉간섭적이고 방치하고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애정을 제공하고 적절하게 감독

하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과잉간섭적이고 방치하고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나, 애정을 제공하는 양육행동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판별분석 중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을 예측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수행한 결과,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문제행동집단이 비문제행동집단에 비해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총점이 더 높았다. 부가적으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8개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모 양육행동의 요인들이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을 구분하는 상대적인 판별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문제행동집단과 비문제행동집단을 가장 잘 판별하는 예측변수가 아버지 양육행동의 경우 방치, 과잉간섭, 애정 요인이었고, 어머니 양육행동의 경우 과잉간섭, 방치, 애정, 비일관성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평균을 비교했을 때, 문제행동집단이 비문제행동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방치 및 과잉간섭적인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과잉간섭, 방치 및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이 높은 반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이 낮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정신병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 양육행동 척도가 있기는 하나,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즉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문제행동이나 정신병리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감독이나 비일관성, 방치, 학대 등 보다 병리적인 양육행동 측면들도 포함함으로써 부모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면 뿐 아니라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측면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리적인 부모 양육행동은 특히 품행장애나 충동성, 위축,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임상장면을 방문하는 청소년의 성장배경 평가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또한 본 척도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평가도구로서의 유용성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최근 양육에 아버지의 참여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은화, 이경우, 이기숙, 1991).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그 가족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한 측정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나 지적인 열망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한 요인을 포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신뢰

도 및 타당도가 적절할 뿐 아니라, 이를 다른 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교차타당화하였으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적절하게 예측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자녀의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이다. 이는 특히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의 부모와 관련된 성장배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개입이나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치료적 측면에서 유용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며, 이와 관련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의 일반 중학교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무선적으로 대상을 표집한 것이 아니라 편의표집한 표본이다. 물론 강북, 강남, 강서, 강동 지역을 포함하도록 학교를 선정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7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 지역 외에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대하여 표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중고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부모 양육행동은 문화적인 배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지위, 부모의 학력과 연령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는 다른 구성요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이나 부모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집단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척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질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적절히 발달해 있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이 있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출생전후부터 지속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보다 조기에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이나 유아를 위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부모 양육행동의 평가를 위한 예비적 연구이며, 추후에 질문지를 보다 쉽게 제작하거나, 질문지 외에 그림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자녀가 지각한 내용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실제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혹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고 다른 형제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는 방법도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지각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 당사자가 경험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양육행동 그 자체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인 측면에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는 실제 문제행동을 나타내어 임상장면을 방문한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 인문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부모 양육행동의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학대나 방치와 같은 매우 병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항분석 과정에서 학대와 방치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에 가깝게 평균이 편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요인을 제외시킨다면 병리적인 부모 양육행동의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는 평가도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척도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준거관련타당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과 관련해서, 본 연구의 준거관련(예측)타당화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약 10% 설명해주고 있었으며, 분류정확성도 70% 내외로 다소 적었다. 이는 두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도 청소년의 기질이나 또래관계, 지능, 학업적인 측면 등 많은 변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본 연구가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실제 문제행동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병리적인 양육행동이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정신병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학대의 설명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에 영향을 덜 주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본 연구가 임상집단이 아닌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을 임상집단으로 확대하여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타 양육행동 척도와 의 공준타당도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준거관련 타당화 작업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K-YSR 총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는데,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즉 K-YSR의 하위 척도들인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점수와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는데, 각 문제군에 따라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외현화문제보다는 내재화문제를 훨씬 더 잘 예측하였으며,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내재화문제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반면, 외현화문제는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품행장애와 비행의 치료에 부모의 감독이 효과적이라는 사전연구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Forehand & Miller, 1997; Wasserman et al., 1996).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나타내는 문제행동이나 정신병리의 유형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의 하위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8, 141-156.
- 양문현 (1983).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 (1997).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동계,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896-903.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노우트, 11(1).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연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화, 이경우, 이기숙 (1991). 한국 아버지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1, 105-137.
- 이종일, 송수길, 윤창영 (1998). '아버지의 양육태도척도'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 34-46.
- 정원식 (1975).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 한중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오강섭, 이시형 (1998).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양육태도 검사의 개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 198-208.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rrindell, W. A., Emmelkamp, P. M. G., Monsma, A., & Brillman, E. L. S. (1983).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aetiology of phobic disorders : a 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 183-187.
- Baldwin, A. L. (194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48-61.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75, 43-88.
- Becker, W. C. (1964).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ew York: Russell Sage, pp169-208.
- Bing, E. (1963). Effect of childrearing practices on development of differential cognitive abilities. *Child Development*, 34, 631-648.
- Busse, T. V. (1969). Child-rearing antecedents of flexible thin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 585-591.
- Cicchetti, D. & Toth, S. L.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 Ekblad, S. (1988). Influence of child-rearing on aggressive behavior in a transcultural perspectiv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78, 133-139.
- Engel, G. (1977). The need for a new medical model : a challenge for biomedicine. *Science*, 196, 129-136.
- Forehand, R., Miller, K. S., Duta, R., & Chance, M. W. (1997). Role of parenting in adolescent deviant behavior : replication across and within two ethnic group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65, 1036-1041.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143-154.
- Heilbern, A. B., Harrell, S. N., & Gillard, B. J. (1967). Perceived childrearing attitudes of fathers and cognitive control in daught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11, 29-40.
- Hess, R. D. & Shipman, V. C. (1965). Early experience and the socialization of cognitive mod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36, 869-886.
- Jacobson, S., Fasman, J. & DiMascio, A. (1975).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e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0, 5-14.
- Kagan, J. (1971). *Understanding children: behavior, motives, and thought*. NY: Harcourt Brace Javanovich.
- Kaplan, S. J., Pelcovitz, D., Salzinger, S., Weiner, M., Mandel, F. S., Lesser, M. L., & Labruna, V. E. (1998). Adolescent physical abuse: risk for adolescent

- psychiatric disord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 954-959.
- Knutson, J. F. (199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ltreated children : putativ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401-431.
- Koestner, R., Ryan, R. M., Bernieri, F. & Holt, K. (1984). Setting limits on children's behavior: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ontrolling vs informational styles on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5, 233-248.
- Lewis, D. O. (1992). From abuse to violence: psycho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maltreat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 383-391.
- Locke, J. (1693).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In P. Gay (ed.), (1964). *John Locke on Education*.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McKinnon, A., Henderson, A. S. & Andrews, G. (1993). Parental 'affectless control' as a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 a risk factor refined. *Psychological Medicine*, 23, 135-141.
- Parker, G. (1979a).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0-560.
- Parker, G. (1979b).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arker, G. & Lipscombe, P. (1979). Parental overprotection and asthma.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3, 295-299.
- Parker, G. & Lipscombe, P. (1980). The relevance of early parental experiences to adult dependency, hypochondriasis and utilization of primary physician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3, 355-363.
- Perris, C., Arrindell, W. A. & Eisemann, M. (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England: John Willy & Sons Ltd. pp 3-26.
- Perris, C., Jacobsson, L., Lindström, H., Von Knorring, L. & Perris, H. (1980). Development of a new inventory for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u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1, 265-274.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ousseau, J. J. (1762). *Emile, Or Education*. (B. Foxley transl.) London: J. M. Dent & Sons.
- Sato, T., Sakado, K., Uehara, T., Narita, T., Hirano, S., Nishioka, K. & Kasahara, Y. (1998). Dysfunctional parenting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sample of employed Japanese adults: evidence for the 'affectless control' hypothesis. *Psychological Medicine*, 28(3), 737-742.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Psychology*, 226-235.
- Schaefer, E. S. (1965a).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chaefer, E. S. (1965b).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chaefer, E. S. & Bell, R. Q. (1958). Development of a 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 *Child Development*, 29, 339-361.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p84-88.
- Wasserman, G. A., Miller, L. S., Pinner, E. & Jaramillo, B. (1996). Parenting predictors of early conduct problems in urban, high-risk boy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 1227-1236.
- 원 고 접수 일 : 2004.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1. 14.
게재결정일 : 2004. 11. 22.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Myo-yeon Huh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verify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subjects were 146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846 subject participated in the scale development study, and 615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cross-validation and prediction validity. The 80 items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were generated through document studies, and the content validity of this initial inventory was verified by children and adolescent psychiatrists. In the scale development stage, item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were used to assess the initial inventory. As a result, there were 8 significant factors and 43 items were select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cross-validate the factor structure was conducted, and the factor structure fitted well. Consequently, the sub-factors of the final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were monitoring, reasoning, inconsistency, over-expectation, intrusiveness, physical abuse, neglect and affec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ve validity, the total score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redicted adolescent's total problem behavior well. Also, it showed that paternal parenting behaviour in the order of intrusiveness, neglect, affection, monitoring, and inconsistency predicted the adolescent's total score in problem behaviour. In the case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ur it came in the order of intrusiveness, neglect, inconsistency, and affection. As the result of discriminant analysis, both parents' total parenting behavior score distinguish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blem behavior group and non-problem behavior group. Among the paternal parenting behavior factors, neglect, intrusiveness and affection discriminated two groups, and in th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factors, neglect, intrusiveness and affection discriminated two groups significantly well. The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which is developed and validated in this study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assessing parenting behavior, which positively or negatively influences adolesc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Key Word : *adolescent, parenting behavior, inventory*